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논의 임실군, ‘가을 분위기’ 물씬

최영일 순창군수, 긴급 대책회의 개최... 피해 현황 공유·대응계획 수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해 전국적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장애가 속출한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수는 29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번 화재는 총 647개 정부 업무 시스템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으며, 이 중 대민용 서비스는 436개에 달한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2등급의 핵심 민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전국민적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순창군의 경우, 총 99개 정보시스템 중 43개(약 43%)가 장애 발생했으며, 이 중 대민용 서비스 25개, 내부처리용 서비스 18개가 영향을 받았다. 피해의 주요 원인은 행정안전부 피해 시스템과의 자료 연동 서비스 장애로 분석되고 있다.

최 군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군수를 중심으로 행정과, 안전재난과, 민원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 대응대책반을 즉시 구성했다. 대책반은 부서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해 전국적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장애가 속출한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수는 29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에 나섰다.

조사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부서별 피해 현황과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대민용 서비스에 대해 수기 접수 전환, 긴급 복지 지원금 선지급 등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군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 시스템 장애 현황을 게시하고, 민

원 접수는 전화, 방문,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복구가 완료된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위기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군민 불편 최소화에 신속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남원국제드론제전’ 적극 홍보

시, 전주드론축구월드컵 현장서 홍보활동 전개

남원시는 최근, 전주에서 열린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현장에서 관람객과 선수단을 대상으로 남원드론제전을 알리는 다채로운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전주 더 메이 호텔에서 열린 드론산업 국제 심포지엄에도 참석해 남원국제드론제전의 주요 프로그램과 개최 의미를 소개하며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활동은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2025 K-Drone to World Festival의 부산 개막에 이어 전주에서 펼쳐진 가운데, 남원시가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남원국제드론제전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K-Drone to World Festival과 연계



해 드론과 로봇을 아우르는 한층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가 참가하는 드론·로봇 스포츠 대회, 드론·로봇 산업 전시와 국제 컨퍼런스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드론공연 및 체험 페스티벌, 지역 농특산물과 글로벌 음식을 아우르는 글로벌푸드 페스티벌이 마련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박람회 부스운영자 현장 설명회

남원시 여성가족과에서는 29일 오후 2시,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5년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박람회 부스운영자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개최될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스 운영자들에게 분야별 부스 배치도 안내, 부스운영자 준수사항, 협조 및 전달사항, 안전대책을 안내했다.



박람회 주요 내용은 △청소년 직업 체험&진로컨설팅 △관광사, 유관기관, 은행, 시설 등 현장 근무자 1:1 멘토링 △개막식(축하공연, 개막퍼포먼스) △

유명직업인 토크&공연 △청소년 참여 공연 △고교 및 대학 화과 소개 등 40개 테마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 참여를 향상을 위한 수송 차량 3대 배치계획을 사전 수립, 현재 관내 중·고교 1,040명 예약을 완료하였으며,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관공서, 유관기관, 은행, 청소년시설 등 각 분야 직업군의 현장 근무자가 진로 상담자로 파악된 직업에 대한 현장 1:1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천변·봉어섬 생태공원·임실치즈테마파크에 계절 꽃 경관 조성

임실 천변과 봉어섬 생태공원에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코스모스가 가지개를 켜고 만개해 새파란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유혹하고 있다.

임실 천변 1.1km의 구간에 코스모스 식재로 다년생 초화류와 어우러져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고 있으며, 봉어섬 생태공원에는 봄에 붉게 물들었던 꽃양귀비 군락지가 이제 10,000㎡ 규모의 코스모스밭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가을을 맞이해 계절 꽃 식재 사업으로 시가지 주변 화정교차로 및 꽃박스 1,086개와 11개소의 화단을 조성하여 가을 분위기를 선사하고 있다.

또한, 임실치즈테마파크에는 임실N치즈축제 시기에 맞춰 천만송이 국화꽃만 아니라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조성된 구절초를 만날 수 있다.

치즈테마파크 전망대에 위치한 바람의 언덕과 사바이벌장 뒤편에는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힐링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구절초 동산이 조성 되어있다.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 및 임실치즈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심 민 군수는 “임실N치즈축제가 열리는 가을철이 되면 임실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국화꽃 등 아름다운 경관에 반하고 있다”며 “구절초 동산까지 더해져 풍성하고 다채로운 꽃 향연과 축제의 보는 즐거움을 한층 더해줘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임실 이미지를 각인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의소, 자살예방 캠페인 전개

남원시보건의소(소장 한용재)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9월 한 달간 세계 자살 예방의 날(9월 10일)을 기념한 자살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등하굣길 자살예방 캠페인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명 존중 메시지와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관내 10개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에게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심리상담 안내 등 지역 자원 정보를 제공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친구들에게 자살예방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또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예비귀농귀촌인 준비교육 성황리 마쳐

순창군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관외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성황리 마친 2025년 순창군 예비귀농귀촌인 준비교육이 지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예비 귀농귀촌인 20명이 참여했으며, 발효테마파크, 장류체험관, 일랜드, 농업기술센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직접 체험하며 지역의 농업·문화·관광 자원을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과정은 △순창군 귀농귀촌 정책 소개 △감동 예방과 주민 간 소통 교육 △토양 이해와 기초 영농방법 △귀



농 선배 특강(나의 귀농 이야기) △지유농업 및 특산물 농장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해 순창군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교육 과정의 내실을 입증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추석 연휴 기간 비상 진료체계 가동

임실군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한다.

군은 추석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운영을 통한 응급환자와 일반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진료소 7개소를 포함한 의료기관 36개소, 휴일 지킴이 약국 13개소가 지정·운영된다.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보건 의료에 비상진료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실 운영(구급차 24시간 대기)을 통해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의료기관 운영 현황과 세부 일정은 E-gent(홈페이지)과 응급의료정보제공(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에는 안전상 비의약품판매업소로 신고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안전상 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산행철 안전 산행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등산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산행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가을은 일교차와 급격한 기상 변화로 저체온증, 실족사고, 조난 등이 쉽게 발생해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본인 체력에 맞는 산행코스 선택 △등산 전 기상정보 확인 △정해진 등산로 이용 △출발 전 동행자 및 가족에게 산행계획 알리기 △해가 지기 전 하산하기 등의 기본수칙을 지켜야 하며, 반드시 휴대전화와 랜턴, 비상식량, 구급약품을 지참하고, 산행 중에는 음주를 삼가야 한다.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는 것이 신속한 구조에 큰 도움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유현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바람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에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